

선거행정 잘못에 회장 구속까지... '진퇴양난' 광주시체육회

이상동 회장 '클럽 춤 조례 청탁' 등 개인 비리로 1년 2개월 선고 법정 구속 확정판결 전까지 자격 박탈 못해... 내년 2월 선거 때까지 회장 공석 가능성

광주시체육회가 또다시 악재를 맞았다. 지난해 7월 선거 관련 소송으로 직무정지된 이상동 회장이 6개월만에 개인비리로 법정 구속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5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

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2017년 사이 주류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인정했던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 금지법 외 혐의를 부인했던 업무상횡령 혐

의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 회장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체육회장직을 상실한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체육회 임원의 자격을 잃는다. 시체육회는 전전금응이다.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에 대한 1심선고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임원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항소를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판결도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시체육회는 최악의 이미지 실추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사무처의 선거행정 잘못으로 회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얌전데 댈친 격'이다.

그 여파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체육회는 새 회장을 뽑는 내년 2월까지 회장직이 공석인 채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판 일정상 연내로 당선무효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기 어렵고 이 회장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5월 치른 보궐선거에서 선거행정 잘못으로 회장직무 정지를 초래했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전남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 당선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에서 이상동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대한체육회

가 정한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주장 등을 인용했다. 3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이 의무 조항인데 이를 어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한편,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자들은 지난해 5월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이 같은해 7월 인용된데 이어 11월 본안소송에서도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해 김장준 초대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자 보궐선거를 치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지승 기자 dok2000@kwangju.co.kr



“베이징 향해” 이승훈-정재원 나란히 질주

13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48회 전국남녀스프린트 및 76회 종합 스피드 선수권대회' 남자 올라운드 5000m 경기에서 이승훈(오른쪽)과 정재원이 나란히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올림픽 3주 앞 다가왔는데... 출전선수도 확정 못한 여자 쇼트트랙

출전 의지 강한 김지유 대표팀 합류 심석희 판결 따라 20일 이후 결정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주력 종목인 쇼트트랙 여자부는 아직 출전 선수를 결정하지 못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당초 심석희, 최민정(성남시청), 김지유, 이우빈(연세대), 김아랑(고양시청)으로 꾸려졌다. 선발전 1~3위를 차지한 심석희, 최민정, 김지유가 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 이우빈과 김아랑이 단체전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A코치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팀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김지유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에서 발목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으로 쓰러졌다. 결국 대표팀은 최민정, 이우빈, 김아랑이 남은 월드컵 경기 개인전과 단체전에 나섰다. 선발전에서 6, 7위를 기록한 '대체 선수' 서희민(고려대)과 박지윤(한국체대)은 단체전 멤버로 합세했다.

이들 5명은 충북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석희의 변호인은 12일 심문기일에서 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뒤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의지를 알렸다. 김지유 역시 올림픽 출전 의지가 강하다. 발목을 핀을 박는 수술을 한 김지유는 지난 10일 진천선수촌에 합류해 올림픽 출전 준비에 나섰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일단 심석희에 관한 법원 판결 이후 최종 엔트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올림픽 엔트리는 일차적으로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정한다. 현재 몸 상태, 대표팀 팀 워크, 최근 훈련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심석희와 김지유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20일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빙상연맹은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바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대표팀을 확정한다. 엔트리 마감일은 24일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등산학교 16~21일 동계반 운영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이 지난해 여름 진행한 '제43회 광주전남등산학교' 수료식. <광주일보 DB>

광주·전남지역 알파니스트의 산실인 광주전남등산학교가 동계등산학교를 개설, 운영에 들어간다.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교장 서은호)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전북 완주군 병풍바위 인근에서 '제43회 광주전남등산학교 동계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등산학교는 1979년 8월 지리산 피아골에 개설된 '산학교'가 근간이 돼 40년 넘도록 광주·전남지역 산악 인제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동계등산학교는 16일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사무실에서 개교식을 열고 교육장으로 출발, 일반과정과 지도자과정으로 나눠 5박 6일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일반과정은 겨울철 등반에 필요한 장비선택 및 사용법, 방벽 등반 기초훈련을 받게되며 전문등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보유한 교육생들로 이뤄진 지도자 과정은 방벽 등반에 따른 선등(先登) 및 확보물 설치법 등에 대해 교육받게 된다. 교육생들은 등반기술 이외에도 일과 후 분임토의를 통해 동계 산행에 대한 지식을 넓힐 계획이다. 서은호 등산학교장은 "교육기간 동안 등산학교 교훈인 '성실, 인내, 안전' 중에서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안전사고에 유념하면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등반기술을 익혀 대한민국 산악 발전에 보탬이 되는 산악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주오픈테니스 17일 개막 조코비치 출전 논란 계속 권순우 본선 첫승 관심 장수정 오늘 예선 결승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가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한다. 올해 대회는 개막 전부터 남자 단식 4연패에 도전하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논란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일단 대회 톱 시드를 받은 조코비치는 13일 오후 대진 추첨까지는 대진표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출전이 가능해지더라도 코로나19 방역이 엄격한 호주 내에 조코비치가 백신을 맞지 않고 입국했다는 공포가 많은 시선이 많아 팬들의 엄청난 아우와 맞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호주오픈 통산 10번째 우승과 함께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신기록인 21번째 우승을 달성한다. 조코비치와 함께 20회 우승 기록을 나눠 가진 라파엘 나달(6위·스페인)도 21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또한 명의 '메이저 20승' 기록 보유자인 로저 페더러(16위·스위스)는 무릎 부상으로 불참한다. 지난해 US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정상에 오른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와 2020년 US오픈 준우승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도 우승 후보로 주목된다. 여자 단식에서는 세리나 윌리엄스(47위·미국)가 불참하는 가운데 홈 코트의 에슬리 바티(1위·호주)가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힌다. 2019년과 2021년 이 대회 우승자 오사카 나옴이(14위·일본)가 바티의 대항마로 평가된다. 지난해 US오픈 결승에서 만났던 에마 라두카누(18위·영국)와 레일라 페르난데스(24위·캐나다)의 성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선수로는 권순우(53위·당진시청)가 남자 단식 본선에 출전하고, 장수정(212위·대구시청)은 여자 단식 예선 결승에 올라 있다. 장수정은 14일 레베카 마사르바(163위·스페인)와 여자 단식 예선 3회전까지 이기면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 진출한다. 권순우는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유독 호주오픈에서만 단식 본선 승리가 없어 이번 대회를 앞둔 각오가 남다르다. 이번 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440만 호주달러(약 38억원), 남녀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패한 선수에게도 한국 돈으로 7700만원 정도인 9만 호주달러를 지급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특송
2관	경관의 피
3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하우스 오브 구찌, 클리프 더 빅 레드 독, 해피 뉴 이어
4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6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9관	하우스 오브 구찌
7관	씨네캐슬 씽2게더, 클리프 더 빅 레드 독,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8관	씨네캐슬 경관의 피,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타움 콘서트 I 로미오와 줄리엣

일시 : 2022. 01. 27.(목)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